

혁신적인 제품과 안정적인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플레어코리아

플레어코리아(대표이사 서영철)는 캐나다에 1992년 설립되어 30년 넘게 북미 지역에 포장재를 공급해온 패키징 전문 기업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에 주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품질 관리를 위해 포장용 필름의 개발부터 생산, 포장재의 인쇄, 가공 등 전체 사업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그중 플레어코리아는 아시아 지역의 생산 거점인 한국 제품의

통합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플레어는 일반적인 포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보다 혁신적인 고품질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 원칙은 연매출 1억불이 넘는 실적과 함께 플레어를 포장산업계에서 대표적인 성공 기업으로 남게 했다. 올해 더 큰 목표를 세운 플레어코리아는 남미 시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 캐나다에 1992년 설립되어 30년 넘게 북미 지역에 포장재를 공급해온 패키징 전문 기업 플레어

자체개발 기능성 필름에 테크니컬 컨설팅을 더하다
포장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필름에서 시작된다.

플레어코리아는 다층 공압출 필름(DTR, EVOH Coex Film), Easy Peel Film(ESPT), Forming Film, MAP, VSP Film 등을 자체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Technical Sales Group은 필름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필름의 개발 및 테스트, 생산 프로세스 점검과 컨설팅까지 수행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플레어코리아 이준우 상무이사는 “연포장 재질 구성을 보면 인쇄 필름이 있고 중간에 베리어 필름이 있고 실란트 필름이 있는데 인쇄하고 합치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품질 편차 개선을 위해 평택에 필름 공장을 설립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플레어코리아가 7층 필름과 9층 필름을 가지고 있어 필름의 조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특징점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필름을 개발했다. EVOH Coex Film은 산소에 대한 배리어성은 좋은데 습기에 대한 배리어성은 떨어진다. 최근에는 습기에 대한 배리어성을 개선해 고객사로부터 검증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S 필름은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특수한 필름이며, 주로 산소 투과율을 낮추고, 포장된 제품 내의 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플레어코리아는 일본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OS 필름을 개



▲ 플레어코리아 이준우 상무이사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발해 출시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품질 필름들은 국내에서
알게 모르게 소문을 듣고 온 업체들이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플레어코리아 이준우 상무이사는 “다양한 기
능성 필름을 개발하며 잉크, 접착제, 각종 필
름 소재, 첨가제 등 다양한 원부재료가 투입되
고 컨버팅 후 다양한 반응들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개발할 당시는 힘들지
만 시간이 지나면 기능성 필름들이 회사 매출
에 크게 기여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자체 개발 필름뿐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플레어코리아는 테크니컬 컨설팅으
로 최첨단 장비를 통한 제품 분석, 제품 최적
화를 위한 포장 기술 제안 및 개선, 개발 최적
의 포장을 위한 기술 인력 및 테스트 지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도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한다.

플레어코리아의 고객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략은 글로벌 식품 대기업의 마음을 사로잡
기에 충분했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사와 신뢰 형성

플레어코리아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품질관
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TQM(Total
Quality Management)과 BCM(Brand
Color Management)이다. 플레어코리아는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품 품질 관리나 색상 감리를 제품이 만들
어진 후에야 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일어
나면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플레
어코리아는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
해 TQM과 BCM을 만들었다. TQM과 BCM
은 플레어 제품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높인 성
공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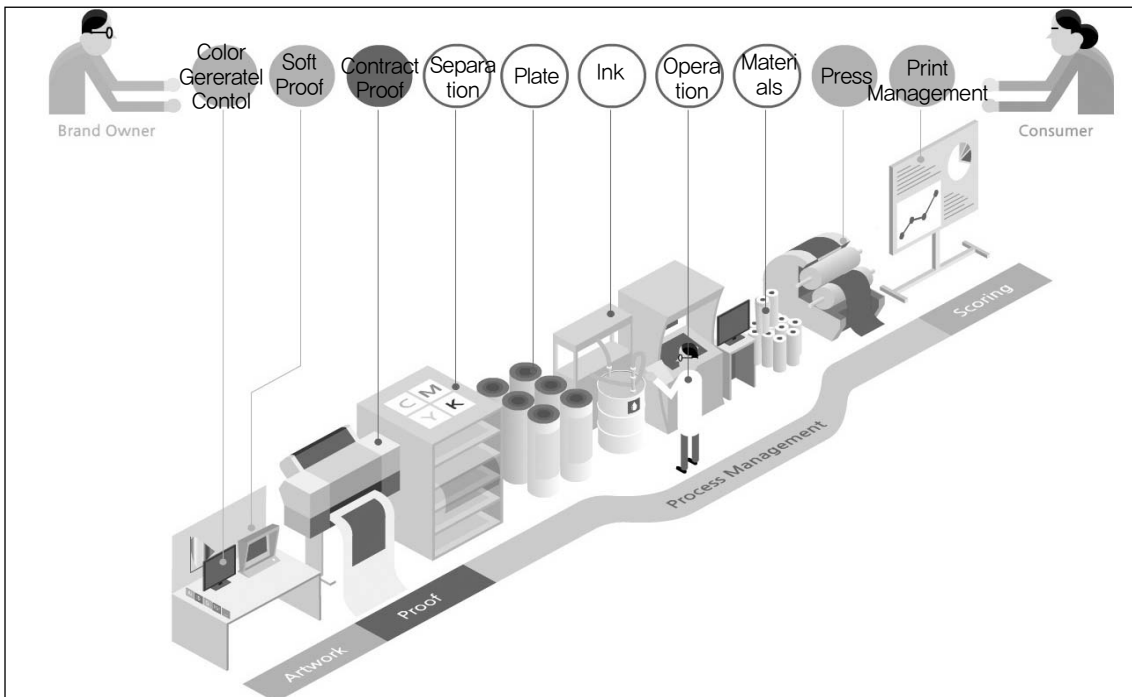
먼저 TQM은 생산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플레어코리아의 주요제품 중 하나인 압축팩과 상하단 필름

수 있는 ‘자체 개발 전산 시스템’이다. 제품별 정보, 작업 진행 상황, 단계별 Inspection 결과, 문제 발생 조치 결과 등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Technical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플레어코리아의 모든 협력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공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BCM은 일관적인 인쇄 품질을 위해 Color, Opacity, Matte Gloss, Barcode, Resister 등을 수치화해 보여 주며 객관적인 색상 측정 장비를 통해 계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량적 인쇄품질관리시스템’이다. 플레어코리아는 2011년부터 일관성 없이 관리되어 오던 인쇄 품질을 보며 객관적 인쇄 품질관

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북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셋인쇄 표준인 Gracol를 모티브로 그라비아인쇄 방식에 맞게 자체적으로 인쇄 표준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BCM 시스템을 사용하면 디자인 당시 색과 인쇄 후 색이 다른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쇄 품질 기준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디자인팀 류영우 이사는 고객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플레어의 협력업체들을 모두 BCM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공장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 Brand Owner의 Design 완료 후 각 단계에 필요한 기준설정, 작업진행 및 관리를 수행한다.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포장재가 생산 및 공급되고 있다. 또한 포장 인쇄물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컨설팅과 함께 디자인, 아트웍, 제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팀 류영우 이사는 향후 BCM의 미래 발전에 대해 “BCM의 웹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장에 카메라를 두고 고객이 어느 나라에 있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인쇄물을 보며 감리할 수 있다. 아직은 투자가 되어야 실행할 수 있지만 발전 방향은 BCM의 플랫폼화이다.”라고 말했다.

플레이어는 ‘혁신적으로’ ‘앞장서’ 나아간다

플레이어의 경영 키워드는 ‘혁신과 품질’이다. 플레이어는 창업 초기부터 일반적인 포장과 단순 가

격경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남들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동사는 점차 고도화되고 기능화되어 가는 세계 포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선도적인 제품과 세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플레이어 제품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품질 유지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플레이어는 글로벌 대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R&D 설비와 전문 인력을 한국의 캐나다 등 주요 거점에 마련하였고 품질관리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품질관리시스템은 플레이어코리아의 성공 열쇠인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남미 지역으로 뻗어가기 위해 기존 공장의 약 3-



▲ 플레이어의 기술연구소 모습



▲ 플레이어의 응용연구소 모습

4배 확장한 멕시코 공장을 건설했고, 캐나다 본사와 플레이어코리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증설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준우 상무이사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플레이어의 제품을 향한 자신감이 녹아있었다.

플레이어코리아 “Beyond 20 Years”

플레이어코리아(유)는 현재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0년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력에 대한 투자다. 플레이어코리아는 전반적인 포장 산업의 인력 고령화로 젊은 인재 교육과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능성 필름 제품의 차별화이다.

이준우 상무이사는 “플레이어코리아만의 High barrier, 복합 기능, 선택성 필름제품 등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지향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선도적인 리사이클 제품 구현과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인 패키징이다. 플레이어코리아(유)는 비닐 포장재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Beyond 20 Years”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3R(Reduce, Reuse, Recycle)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플레이어코리아 이준우 상무이사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인 공공재 포장이지만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이 향후 플레이어코리아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플레이어코리아가 가야할 길을 강조했다. 